

목회자의 프락



이동균 목사
혜성교회 담임

요즘 나는 모교인 결백초등학교의 100년사를 정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1925년 문을 연 학교의 옛 기록을 찾고, 졸업생들의 기억을 듣고, 오래된 사진과 문서를 들여다본다. 지나간 백 년을 붙잡는 일이다. 그런데 며칠 전, 지난 백 년의 기록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는 장면 하나를 보았다.

결백초 아이들의 풋살 경기였다. 경기에 나선 아이는 여섯 명. 전교생이 모두 선수였다. 교체선수도 없었다. 어린 2학년 아이까지 뛰어야 했다. 누가 다치지나 지치면 대신 들어갈 선수도 없다. 여섯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의 자리를 매우며 뛰어야 했다.

나는 사실 풋살이 어떤 경기인지 규칙도 잘 모른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 보니 경기 규칙을 몰라도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몸으로 공을 쫓아 달

아니다.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건물 하나가 없어지는 일이 아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젊은 부모들이 떠나며, 마을이 늙어간다는 뜻이다. 학교가 없는 마을에 젊은 가족이 새로 들어오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작은 학교의 문제는 교육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너희가 학교를 지켜야 한다'고 집을 지워서는 안 된다. 여섯 아이는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잘 배우고, 잘 놀고, 친구들과 행복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다. 학교를 지켜야 할 책임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다.

그렇다면 작은 학교가 살아남는 길도 단순히 학생 숫자를 늘리는 데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교육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 아이를 한 사람으로 깊이 볼 수 있는 교육, 자연과 마을을 교실로 삼는 교육, 운동과 예술과 체험을 통해 자기 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전담에서도 지역 특성과 학교의 강점을 살리는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과 농산어촌 유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와 머무는 학교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나는 결백초 100년사를 쓰면서 처음에는 지나간 백 년을 어떻게 잘 기록할 것인가만 생각했다. 언제 학교가 세워졌고, 몇 명이 졸업했고, 어떤 교장과 선생님이 있었는지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교체선수 없는 여섯 아이들

리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서로에게 공을 건네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였다. 잘하고 못하고 떠나 그 아이들이 잘 대견했다.

어린 여섯 아이들이 소외감, 우울함을 이겨내고 그 래 우리 할 수 있어라고 파이팅을 외치며 운동경기에서 나서는 모습이 눈물겨웠다. 서로 합심하고 규칙을 지켜며 경기를 주도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들이 눈시울을 적셨다.

큰 학교라면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을 골라 팀을 만들 수 있다. 주전이 있고 후보가 있다. 그러나 이 학교에는 고를 아이가 없다. 있는 아이가 골 선수다. 한 명 한 명이 빠질 수 없는 존재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작은 학교의 약점이지만 동시에 작은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교육인지도 모른다. '너는 없어도 된다'는 아이가 한 명도 없다.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다. 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아이를 기다려야 하고, 큰아이가 어린아이를 살펴야 한다. 경쟁보다 협력이 먼저이고, 개인의 능력보다 함께 끝까지 가는 일이 중요해진다.

결백초의 풋살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2024년에는 전교생 14명 가운데 여학생 8명이 풋살팀을 꾸려 전남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작은 학교가 풋살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과 공동체성을 키워 온 과정이 이미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여섯 아이들의 경기를 보면서 기쁨만 느낄 수는 없었다. 두 해 전보다 아이들이 크게 줄어든 현실 때문이다. 하원구 감소는 어느 한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전국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210곳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제 작은 학교의 위기는 농산어촌만의 낡은 이야기도

100년사의 마지막 장에는 과거만 있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백 년의 첫머리에 서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교체선수 한 명 없이 운동장을 뛰었던 여섯 아이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경기를 이기기 어려웠던 아이들. 어쩌면 그 모습은 오늘 농촌의 작은 학교가 처한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모습을 절망으로만 기록하고 싶지 않다.

여섯 명밖에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여섯 명이나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여섯 아이 모두가 주전 선수이고, 모두가 학교의 주인공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백 년을 시작하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운동장을 힘껏 달리는 동안 교장과 선생님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백 년 전에도 누군가는 이 산골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한 세기를 지나 오늘에 이르렀다. 굴곡진 현대사를 건너오면서 학교는 우뚝 서 있음이 자랑이다. 처음 학교를 세우는 운동을 하신 지역 명장님이 "북지없는 양무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가 필요함을 역설한 한 세기를 지낸다. 새 백년도 이 열정을 이어가야 한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한다. 앞으로 백 년 뒤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학교를 남겨줄 것인가.

그 답을 나는 교체선수도 없이 끝까지 운동장을 뛰던 여섯 아이들의 얼굴에서 찾고 싶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주의 추천도서

문류 신앙도서 <목회와설교> <설교> <설교론/화술>



설교트렌드 2027 변화시키는 설교

《설교트렌드 2027》은 아트설교 연구원 설교시리즈 네 번째 책이다. 부제는 '변화시키는 설교'다.

설교자가 설교 하는 목적은 정중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정중이 매우 듣는 설교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설교자들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는데 정중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넋두리를 늘어놓곤 한다. 설교로 정중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설교자의 변화가 앞서야 한다. 이는 정중은 설교자의 뒷모습으로 인해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설교로 정중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대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정중은 설교로 변화되기를 극심하게 갈망하므로 이음매 반죽이다. 이런 원리 속에서 변화는 설교자의 특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정중의 변화는 설교자는 변하지 아니라 원리에 중실할 때 가

능하다.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설교를 최선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에게 레마가 되어야 한다.

추천의 글

설교는 언제나 시대의 중심에 서 있다. 시대가 변할수록 설교의 형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진리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간다. 이는 수많은 자료를 순식간에 정리하고, 누구나 그럴듯한 설교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한다. 좋은 설명보다 살아 있는 말씀을, 출중한 논리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를 기다린다.

《설교트렌드 2027》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다. 이 책은 설교의 기술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다. 설교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설교는 무엇을 전달하는가?'라는 질문보다 '설교는 누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책 읽기 살리기



한홍 지음 / 규장각 펴냄

기록적인 무더위를 기록한 여름을 보내며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요즘의 마음이다. 며칠 비가 오는 듯 하던 장마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와 습기를 싸들고 온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생은 무언가를 위해 늘 전투를 치르는 전쟁터라는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 대위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던 중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전쟁과 전투가 많이 나오고 이러한 비유들이 많았음을 떠올리게 된다. 마칠 이러한 생각과 연관되는 책이 하나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성경속의 라이벌들』은 한홍 목사가 저자이다. 저자는 UCB리얼리티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풀라신학교대학원에서 미국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은누리교회 양재캠퍼스 수석부목사, 햇빛트리너리 리더십센터 원장, 한동대 학교 겸임교수를 지냈다. 2009년 새로운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10년의 기도 응답으로 2020년 새 성전에 입당하여 '복음의 향공모란'을 출간시켰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바로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어원의 설명이었다. '라이벌'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로 '치내, 개전'을 의미하는 '리투스'이다. 원래는 강이나 개전의 자원, 봉행을 불러싸고 싸우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이벌은 결국 '같은 물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물이 다 마르거나 어느 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주려고 복을 타게 되면 같이 싸게 되는 관계로 미루어 협력해야 하는 사이가 바로 라이벌인 것이다.

이 책에서는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라이벌의 관계를 크게 3개의 파트,

대적인 갈등 관계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지내게 나와 타인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결코 상대편이 하지 않고 각각의 특성을 인정하며 발전시키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기를 원한다. 즉 경쟁하고 서로에게 자극을 줄지 인정 사랑을 잃지 않는 선의의 마음의 라이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책을 덮으며 교회 안에 다양한 관계를 떠올리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시기심으로 인한 비난은 결국 과격으로 치

성경속의 라이벌들

총 12개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다.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상적인 라이벌을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 사탄과 하갈, 레아와 라헬, 사울과 다윗, 여호수아와 갈렙, 베드로와 바울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긴장과 대립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한 사람이 좀 더 바람직한 인물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한 라이벌로 인해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관계도 있음을 알게 된다. 각각의 라이벌들 간의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좋은 라이벌은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최고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경쟁과 질투가 과해지면 서로를 망가뜨리는 과격으로 치달기도 한다. 특히 지금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건강한 라이벌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적

당한 결과를 만든다..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많기에 책의 내용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건강한 라이벌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더위로 인해 나타내진 내 몸과 영적 상태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러 넣어 본다.

김병모
한국실용신학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정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 신혜란 목사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해,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